

VEILUNE 〈FIRST LIGHT〉

컨셉 초안 리뷰

샘플 · 가상 그룹 · 작성 하도경(前 편무준) · 자료 접수 후 5영업일

총평

방향은 맞습니다. 데뷔 1년 만에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것은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자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장입니다.

다만 지금 초안은 따뜻해지는 쪽으로 너무 많이 움직였습니다. 무드보드의 오렌지 역광과 필름 그레인만 남으면, 데뷔 때 이 그룹을 알아보게 한 서늘함이 사라지고 같은 시기 다른 컴백들과 구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리뷰의 제안은 하나로 모입니다. **빛의 색만 바꾸고, 사람과 공간의 온도는 지킨다.** 아래 기준과 메모는 모두 이 문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만 고친다면

해질녘 B컷을 빼거나 '해 뜨기 직전'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계획에서 '새벽'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크게 흐리는 한 가지입니다.

비용 거의 없음 · 촬영 하루 조정

받은 자료

그룹	4인 걸그룹, 데뷔 1년 뒤 첫 컴백. 데뷔 미니 〈HALF-LIT〉. 세계관은 '달이 얼굴을 가리는 밤에만 보이는 것들을 모으는 넷'
데뷔 비주얼	베일과 반쯤 가린 얼굴, 정면 대칭 단체 컷, 종아·필름 질감, 블루 아워
이번 키워드	FIRST LIGHT · THAW · TRACE · LOW SUN
무드보드	따뜻한 오렌지 역광, 필름 그레인, 서리 낀 유리
계획	컨셉 사진 2종(A 새벽 / B 해질녘), 티저 3편, 뮤직비디오 1편
보류	타이틀곡 템포·장르를 받지 못해 편집 리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기준 · 사진·티저·영상·SNS 담당자가 함께 따를 문장

빛만 따뜻해진다. 표정과 공간은 아직 밤의 넷이다.

새벽은 '밝아짐'보다 '처음 보이기 시작함'에 가깝습니다. 각 팀이 결과물을 낼 때 "빛 말고 다른 것까지 따뜻해졌나?"를 한 번씩 확인하면, 따로 만들어도 하나의 앨범으로 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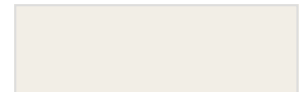
남색 #1F2A44 · 의상과 공간



새벽 오렌지 #E8894A ·
광원에만



서리 회색 #C9D1D6 · 유리와
바닥



종이 백색 #F2EEE6 · 소품과
글자

이어갈 것

가리는 장치

베일을 그대로 다시 쓰기보다 서리 낀 유리나 역광 실루엣으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가린다'는 약속은 지키면서 1년이 지났다는 것이 재료에서 보입니다.

종이·필름의 촉감

데뷔 때부터 이 그룹을 알아보게 한 표식입니다. 디지털 광택으로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넷의 정면 대칭

단체 컷 한 장은 데뷔와 같은 구도로 남기기를 권합니다. 팬이 가장 먼저 '그 넷'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버릴 것

파랑 하나의 단색

블루 아워 단색으로는 '새벽'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남색과 오렌지 두 톤을 권합니다.

끝까지 숨기는 연출

1년 뒤에도 얼굴을 숨기기만 하면 제자리걸음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진을 한 명씩 공개하며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게 하기를 권합니다.

공개 전에 막을 위험 세 가지

1. 해질녘 B컷이 새벽과 겹칩니다

LOW SUN의 오렌지가 FIRST LIGHT와 같은 색이라, 사진만으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팬이 '새벽'이라는 이야기를 읽지 못합니다.

고치는 방향: B컷을 빼거나, '해 뜨기 직전의 푸른 끝'으로 바꿉니다.

비용 거의 없음 · B컷 촬영 시간대만 조정

2. 따뜻한 역광과 필름 그레인은 요즘 자주 보이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만 남으면 데뷔 때의 서늘함이 사라지고, 비슷한 시기 다른 컴백들 사이에서 이 그룹이 덜 보입니다.

고치는 방향: 보정은 스플릿 톤으로 합니다. 하이라이트만 웜(#E8894A 쪽), 미드톤·그림자는 남색(#1F2A44 쪽). 오렌지가 닿는 면적은 화면의 1/5 이하, 피부는 스킨톤 라인 위에 두고 역광 오렌지가 얼굴에 번지지 않게 합니다.

비용 없음 · 보정 지시만 바뀜

3. 티저 세 편이 모두 무드 영상입니다

1년 공백 뒤라 이번에 처음 들어올 팬이 많습니다. 무드만 있으면 멤버를 구분할 장치가 없습니다.

고치는 방향: 개인 사진 공개 순서와 맞추고, 마지막 티저에서 넷의 얼굴을 분명히 남깁니다.

추가 비용 작음 · 티저 3편 편집 구성 변경

검토해볼 만한 다른 방향 두 가지

A · 해동(THAW) 중심

얼음, 서리, 물방울. 팔레트는 차갑게 두고 따뜻함은 손과 숨결에서만 보입니다.

장단점: 데뷔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대신 '새벽'의 밝은 인상은 약해집니다.

B · 사물(TRACE) 중심

멤버마다 상징 사물 하나(편지·열쇠·젖은 운동화·꺼진 촛불). 개인 컷을 사물로 먼저 공개하고 마지막에 사람과 잇습니다.

장단점: 굿즈·앨범 구성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신 제작 소품과 일정이 늘어납니다.

담당자별 메모

사진	단체 컷 한 장은 데뷔와 같은 정면 대칭. 개인 컷은 한 명씩, 역광 실루엣 → 반쯤 보이는 얼굴 → 정면 순서로 공개합니다. 오렌지는 창과 하늘에만.
티저	1편 공간(사람 없이 서리 낀 유리에 빛이 드는 장면) · 2편 실루엣 · 3편 얼굴. 3편 마지막 컷에서 처음으로 넷이 함께 빛 안에 섭니다.
영상	의상과 공간은 남색 계열, 오렌지는 광원에만. 그레이는 입자 크기는 데뷔와 같게, 양만 절반으로 줄이고, 데뷔의 같은 장면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SNS	첫 게시물은 사진이 아니라 서리 낀 유리 질감 한 장. 데뷔 때 가린 것이 녹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앨범·굿즈	종이 백색 바탕에 남색 글자, 오렌지는 한 점만. 반투명 트레이싱지 한 장을 넣으면 '서리 낀 유리'가 손에 잡힙니다.

공개 순서 제안

D-14 SNS 서리 유리 한 장	D-10~7 개인 사진 한 명씩	D-5 티저 1 공간	D-3 티저 2 실루엣	D-1 티저 3 넷의 얼굴	D-day 발매
---------------------------------	--------------------------------	--------------------------	---------------------------	-----------------------------	--------------------

회사가 정하실 것

1. B컷(해질녘)을 뺄지, '해 뜨기 직전'으로 바꿀지
2. 본안으로 갈지, 다른 방향 A·B 중 하나를 섞을지
3. 개인 사진 공개 순서(멤버 순서)를 누구부터 할지

이 리뷰는 의견입니다. 결정과 실행은 회사가 합니다. 읽어보신 뒤 일주일 안에 질문을 한 번 모아 보내주시면 서면으로 답합니다.